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9월 28일 금요일 (음 8월 19일) 제213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 기공식이 27일 부안군 새만금 홍보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과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이형규 새만금위원장, 정동영 국회의원의, 정운천 국회의원의, 김광수 국회의원의 및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2단계 돌입

부안 홍보관에서 기공식
잼버리 이전 완공 목표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시킬 수 있는 '남북도로' 건설 2단계 사업이 정식으로 기공식을 갖고 박차를 가하게 됐다.

전북도는 27일 부안 새만금 홍보관에서 이형규 새만금위원장 민간위원장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해당 지역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지역 주민, 새만금사업유관기관 등 약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 기공식을 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관광광응지에서 군산시 새만금산업용지를 연결하는 총연장 26.7km(폭 6~8차로), 9,079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의 핵심축이다. 남북도로는 총연장 26.7km로 1단계(군산축, 12.7km, 6~8차로)는 지난해 6월 착공해 현재 공정이 17%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정식 기공식을 가진 2단계(부안축, 14km, 6차로)는 올 1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해 기본설계를 착수하고, 5월 실시설계 적격업체 선정과 우선시공분을 착공했으며 2023년 세계 잼버리 이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는 남북도로가 새만금산업단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의 주요 진입도로 역할을 함으로써 인근 주변부터 순차적으로 내부개발을 진행시킬 수 있고, 공사에 필요한 사석

과 흙을 운반하는 비용을 크게 절감시켜 조성원가를 인하하는 등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또한 남북도로와 더불어 새만금 내부핵심축인 동서도로(20.5km, 3,515억원)가 현재 60%의 공정율을 보이며 오는 '20년 완공될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여서 새만금 핵심기반시설인 동서·남북도로가 조기 구축되면 새만금 개발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년 7월)의 100대 국정과제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이 포함됨에 따라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공공주도 매립과 국제공항, 신항만 등 새만금 물류 교통망 조기 구축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새만금 동서·남북도로와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해 12월 항공 수요조사용역 완료하고 올해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예타 면제 등 행정절차 신속 추진으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 2023 잼버리 이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1단계 방과제를 완공(2016년 11월)하고 호안 및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2017년 12월)한 새만금 신항만과 올해 5월 착공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된 새만금~대야 철도 등

핵심 기반시설도 조기 확충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에 기공식을 갖는 남북도로는 단순히 자동차가 오가는 길이 아닌 활발한 개발과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경제의 길이 될 것"이라며 "동서남북 십자도로가 완성되면 새만금 내에 어디든지 20분내에 다닐 수 있어 내부 접근성은 물론 외부 접근성이 좋아져 새만금 개발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만금의 핵심축인 동서남북도로는 공공매립 등 내부용지 개발 추진은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교통비 최대 30%까지 할인'

전주시, 알뜰교통카드
시범 앞서 첫마중길서
시연행사·체험단 발대

전주시가 자가용 대신 걸거나 자전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버스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관련사진 4면)

시는 27일 전주시청과 전주역 앞 첫마중길 일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및 시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의 체험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알뜰교통카드는 전 국민의 교통비 30%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국정과제로 월 44회 사용 가능한 정기권 구입 시 10%(5,000원),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걸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1km당 약 200원 적립돼 최대 20%의 금액(월간 약 11,500원)을 추가 할인받을 수 있어 총 30%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다.

이날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은 사전에 휴대폰에 알뜰교통카드 앱을 설치한 후 도로로 전주시청 맞은편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해 시내버스에 탑승, 전주역 첫마중길까지 이동했다.

이후, 버스에 하차한 시민들은 도로로 첫마중길에 마련된 행사장까지 이동하면서 마일리지를 쌓았다.

또, 첫마중길 행사장에서는 100여 명의 시민체험단이 참석한 가운데 알뜰교통카드 소개와 함께 알뜰교통카드 충전과 앱 설치, 마일리지 적립방법 등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소개하는 현장 안내부스를 운영했다.

시는 사전에 모집한 시민체험단 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알뜰교통카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시범운영과정에서 발견된 개선점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춰줄 알뜰교통카드 제도는 전주를 버스타기 편리한 도시로 만들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걸고 싶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충경로, 사람과 문화로

전주시, 내일 시민·관광객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내 중심도로인 객사 앞 충경로가 2018년도 첫 번째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통해 자동차 대신 사람과 문화로 채워진다.

전주시는 자동차로 가득했던 도로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충경로 사거리에서 다가교까지 600m 구간의 자동차 운행을 통제하고 차가 비워진 도로를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차 없는 사람의 거리는 '도로의 주인은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라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시정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3년차를 맞이한 올해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

다 계절별·테마별 문화행사로 채워진다.

이날 차가 사라진 폭 25m, 길이 600m, 약 1만5,000㎡의 충경로는 '시민 공원 만들기'를 주제로 전주 원도심 방문객들이 충경로에 멈춰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된다.

이를 위해, 시는 별도의 행사부스를 설치하지 않고, 충경로에서 볼

수 있는 하늘과 가로수, 교통체증을 형상화 할 수 있는 시설물(에어베드 등)을 배치, 충경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수집했던 전주의 오래된 사진과 기록물 등을 전시하는 '전주정신의 숲' 공간도 운영키로 했다. /송효철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군산시의회가 항상 함께합니다.

군산시의회